

南道千里 學會紀行

船長 宋 容 武

(一)

年暇때가 되어 집에서 無爲徒食을 하며, 三伏더위와 싸우면서 無聊를 이겨내고 있던차에 韓國航海學會로부터 통지서를 받았다. 今年度 定期總會를 8月 19日 木浦海洋專門學校에서 開催한다는 내용이였다. 總務幹事 閔丙彦教授에게 勞苦를 致謝할겸 전화연락을 하여 나 도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海大教授님들이 가는 편에 同行하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내가 추측하기에 現職海上勤務海技士로서 學會에 참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海上勤務海技士가 學會에 더욱 積極性을 띠 必要性을 느낄 때가 올 것을 期待하며 나는 이번에 꼭 參席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그러나 더욱 分明히 말하자면 木浦海專教授陣에 海大 9期同門이 5名이나 있다는 事實이 나의 木浦行을 決定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立秋가 지나면 시골에서는 이미 무우 배추의 파종이 시작되며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지마는 날씨만은 얼마동안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이 예사이다.

18日 午後 2時 30分에 약속장소인 高速버스 터미널에 나가보니 教授一行 13名이 이미 와서 여장을 챙기며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李俊秀 學會長의 특징있는 등산모 차림과 鄭世謨 教授의 끈색 服正裝이 우선 눈에 띄었다. 團體旅行은 본래 더날 때에 그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목적지를 향하여 차에 오를 때 유람터형이든 수학여행이든 또는 學會參席이든 期待에 부푸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께다. 車內가 좀 더웁기는 했지만 釜山市內를 벗어나 金海平野로 나오니 약간은 시원해졌다. 出穗期를 맞은 平野는 집무르고 가로수의 푸른 잎은 나의 눈을 즐겁게 해 주었다. 同僚들과 또는 親友들과 혹은 先後輩가 함께 하여 이같이 여행을 해보는 것은 나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고 喜喜樂樂한 일이었다.

하늘은 푸르고 산은 수목으로 울창하다. 자주 눈에 띄이는 취락구조개선시범부락은 나의 눈을 刮目하게 만들었고, 河東을 지나 섬진강을 넘어서부터 완만하고 悠長한 농촌의 地形은 더욱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달리는 차안에서는 부담없는 風談議論으로 爽을 피웠다. 治暑를 위한 몇잔의 소주는 長長 車시간만의 먼길도 오히려 지루한줄 모르게 해 주었다. 저녁 여덟時 가까이 되어서 光州에 닿았고, 이곳에서 곧 木浦까지 強行軍을 하기로 하였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 밤길을 우리 一行은 네대의 택시에 분승하여 各己 木浦로 향하였다. 가는 途中 앞에가는 車의 後面이 내가 탄 차의 램프드라이트에 비치자 앞차의 좌석에 두둥실 空山明月이 떠올랐다. 「엇 尹教授이시군」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木浦市內에 들어가서도 尹教授의 덕분으로 좋은 標的을 얻어 여관까지 무난히 도착할 수 있었다. 本人 모르게 혜택을 본 우리들의 악의없는 마음을 尹教授는 넓은 아량으로 용서

해주시기 바랄뿐이다. 木浦에서는 海專에 계시는 同門會員들이 이미 旅舍를 마련해 놓고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다. 趙彰熙 學監을 비롯한 李再雨, 孫聖彬, 朴愷圭, 吳正詰, 鄭圭亨, 崔令錫, 黃仁秀, 鄭明善 등의 諸教授들과 氣焔을 띠하며, 마닷가의 깊은 밤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다.

「有朋이 自遠方來하니 不亦樂乎야」 이 名言이 어찌 論語의 한 귀절로서만 그치고 말랴. 千里길을 찾아온 會友를 맞이해 주는 木浦會員의 多情이 우리를 다함께 취하게 만들었을 께다. 木浦의 名物 세발낙지회를 먹으려고 늦은 밤거리를 헤매었으나 마침 물때가 아니어서 구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곳 會員들의 성의만으로도 山海珍味를 맛본 것이나 다름 없었다. 19日아침 일찍이 儒達山에 오르니 너무나 귀에 익은 삼학도와 영산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때마침 태풍 칼멘嬢의 접근으로 浦口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다.

(二)

宿舎로부터 海專까지 海專버스로 交通便宜를 제공받고 風光明媚의 港口를 眺望하는 木浦海洋專門學校에서 10時 30분부터 1978年度 韓國航海學會가 開催되었다. 學會會員一同과 海專側에서는 朴在南 校長을 비롯하여 趙彰熙 學監 그리고 敎職員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學會長으로부터 朴在南 校長에게 感謝牌증경과 學校側에 記念品증경이 있었다. 한가지 잊지 못할 일은 木浦港導船士이신 鄭一燦 船長께서 學會를 방문하여 金一封을 嘉賞하시었다는거다. 우리는 即席에서 이것을 學會基金으로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任員改選에 있어서는 前任 李俊秀會長을 만장일치로 再選하고 곧 研究發表로 들어갔다. 金一文會員의 「定期船에 있어서의 最大收益을 위한 高·低運賃 貨物量의 결정에 관한 研究」는 海運景氣가 不況에 놓여 있는 現時點에서 볼 때 아주 적절한 論題였다. 李哲榮教授의 「Optimal Design of Automatic Steering System of Ships at Sea.」는 特異한 理論으로서 具體的인 機器系統의 現象을 形而上學的인 抽象概念으로 演繹해 나가는 興味깊은 內容이었다. 洪彰禧 教授의 「LASER의 特性과 應用」은 亦是 그 論題가 많은 興味와 知識에 도움을 주는 內容이었다. LASER 光線武器가 對戰車미사일을 파괴하는데 成功했다는 記事가 나오고 있는 요즘에 時局的으로 보아 時宜를 얻은 發表였다고 생각되었다. 海上勤務海技士의 發表가 전혀 없어 좀 아쉬운 感이 있었으나 다음 機會에는 「海技士의 고답적인 精神姿勢를 鼓吹시키는 敎育의 基本問題」라는 題目으로 나의 平素所見을 發表해 볼 때가 올 것을 기다리기로 했다. 學術發表會를 끝마친 후 우리들은 흥가분한 마음으로 벗들과 어울렸고, 朴在南 校長의 誠意로 배풀어주신 오찬에 초대되어 전망 좋은 水石亭에서 主客이 도도한 흥취로 한여름의 더위를 잊었다. 이 자리에서 세발낙지맛을 보았는데 이것은 海專敎授의 師母님들이 새벽 일찍부터 시장을 더듬어 모조리 걸우어온 人情의 진미였다. 午後의 햇살이 어지간히 기운 무렵 會員一行 30名은 海專에서 마련해준 버스를 타고 海南의 유서깊은 大興寺로 달리었다. 西山大師의 유품을 간직하고 있는 千數百年이 지난 寺刹이다. 간밤부터 오락가락하던 빗방울이 점점 커지더니 靈光땅을 지날무렵부터 沛然히 내려붓는 豪雨로 변하였다.

구름속에 완전히 숨은 月出山의 連峰이 이 고장의 굳굳한 氣象을 말해 주는듯 奇巖峻嶺을 자랑하고 있다. 차안에서는 흥취가 무르익었다. 吳正詰兄의 멋진 司會로 李會長의 木浦의 눈물이 幕을 올

리자 모두가 赤裸裸한 自然人으로 돌아갔다. 가을의 문턱을 두드리는 慈雨속을 달리어 薄暮가 溪谷을 덮을 무렵 우리는 大興寺의 旅舍에 닿았다. 이 旅館 역시 海專의 會友들이 遠方來한 벗들을 위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山寺의 入口에 양편으로 늘어서서 가지가 맞닿아 하늘을 가린 巨幹老木도 극치를 이루고 있으려니와 병풍으로 둘러싸듯 가파르게 솟아오른 山嶺과 綠陰내음 짙은 自然의 향취, 그 사이로 奔流하는 曲水의 흐름은 비록 脫俗한 雲水의 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色即是空이요 空即是色의 경지로 끌어올려 주는 듯 했다. 大興寺의 境內를 돌아나와 旅舍의 뒷마당을 끼고 斷崖 아래로 흘러내리는 溪流는 때마침 내린 雨水로 인하여 水勢가 불어나 그 轟轟滔滔한 소리가 밤새도록 여름밤의 운치를 돌구었다. 넓적하고 시원한 古家의 방들이 山水를 찾은 나그네의 情趣를 흐뭇하게 해 주었으며, 오랜만에 대해보는 장작 군불을 땀 장판방에 누어 落水소리를 듣다보니 멀고도 먼 곳의 鄉愁가 성큼 처마끝에 다가와 있는 것이었다. 三更이 넘어서야 벗들의 끝도 없는 情談속에 묻혀 잠을 이루고 세찬 風雨가 몰아치는 未明, 울리고 또 울리는 풍경소리에 눈을 떴다. 30명이 한자리에 누어 螢雪時節로 돌아간 정다운 저녁이었다. 밤상에 오른 산나물이 입맛을 돌구고 비가 그칠기를 기다렸으나 바람을 걸드린 비는 午前中에는 그칠 것 같지 않았다. 술 한잔 接口 아니하여도 마루에 欣然히 앉아 自然을 감상하는 高允燮教授의 孤高한 모습이 印象的이었다. 山谷을 좋아하는 梁教授와 雨天을 한탄하다 보니 벌써 出發시간이 되었다. 一行이 어제 타고온 海專버스에 탑승하고 大興寺를 뒤로 했을 때 하룻저녁의 신세를 진 山房에 새삼 마음이 끌리는 것을 알았다. 壬亂때 天然의 요새지였던 海南邑을 지나 光州에 도착하여 다시 고속버스로 東行千里길에 올랐다. 光州를 떠나기 직전까지 자상하게 마음을 써준 奇會元, 金千植, 文彩植, 丁海文 會友들 그리고 海專教授一同의 友情은 無等山 수박과 삼학도의 낙지회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까지나 함께 떠오를 것이다. 釜山을 떠날 때는 그렇게도 더웠던 날씨가 이제는 處暑를 눈앞에 둔 탓인지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색이 한 층 엷어보이고 들녘에 서 있는 키다리 수수깡이의 목아지가 제철을 맞아 땅을 향해 묵직히 숙이고 있었다.